출세와 출 세상

(요12:12~19)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출세와 출 세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2013년 1월 1일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근무하는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신년하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직상으로 한국대표부에 속하지는 않지만 사무총장님이신 반기문 총장님도 함께 배석하셔서 식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대중가요 가수인 싸이 씨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한국대표부의 신년하례식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내외분이 참석하시고 그 자리에 가수 싸이 씨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TV 리포터들이 싸이 씨와 인터뷰를 했어요.

반기문 총장님과 신년하례식에 참석해서 떡국을 먹은 소감을 물어보았더니, 싸이 씨가 한 말이 '아! 제가 언제 이런 떡국을 먹어보겠습니까? 어제는 타임스퀘어에서 생일을 축하받고, 새해 첫날에는 유엔사무총장님 내외분과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완~전히 출세했습니다!'
정말 출세했어요!
생일이 12월 31일인 모양이에요, 그러니 1월 1일 떡국 먹은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겠지요.
타임스퀘어광장에서 12월 31일 송구영신의 시점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수 싸이가 왔다고 하니 '와!~' 하지 않았겠습니까? 싸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가.
거기서 생일축하를 받은 거겠죠.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엔사무총장님 내외분과 함께 떡국을 먹었으니 출세도 이런 출세가 없지요.

이 싸이라고 하는 가수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전 세계에서 13억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런 출세가 요즘은 목사님한테도 적용이 돼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담임목사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담임목사님으로 청빙될 목사님께서 정식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당시 시무하고 계시던 교회의 교인 몇 분이 따라오셨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사무총장님이 교회 안내를 하시는데, 마침 목양실에 있던 부목사님 몇 분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본당입니다, 여기가 선교관이고, 여기가 무슨 홀입니다, 무슨 홀입니다' 하고 안내를 하는데, 그때 저는 없었는데 부목사님들 말씀이, 그때 당시 시무하고 계시던 교회교인들이 따라오셨잖아요? 근데 같이 안내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들이 뭐냐 하면, '아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출세하셨네, 우리 목사님 출세하셨네!' 하시더랍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영락교회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받고 큰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출세하셨네, 우리 목사님 출세하셨네!' 그러면서 따라다니시더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세라고 하는 뜻이 뭔지 새삼 얘기할 것도 없지요?
쉽게 말하면 유명해지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든지, 인기를 얻든지, 센세이셔널 한 긍정적이 사건을 일으키든지 해서 이름이 알려지는 겁니다.
이게 출세하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공관복음서를 지나면서 계속 봐왔던 사건입니다.
나귀 타셨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 큰 무리가 와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호했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부분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공식 결정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광경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서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분명히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몰려온 유대인이 270만 명이었다고 해요.
270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무슨 다른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 사건이 지금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즉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결정한 그 결정을 어떻게 수행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결정이 다 헛된 것 아니냐? 무의미한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걸 보아

라!'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의 틀이 무엇인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신앙적 소신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신념에 준해서 볼 때 예수님의 언행이 잘못되어서 죽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이 살면서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러한 도덕적이고 율법에 근거한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엘리트로서 구분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출세경쟁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려 한 것인데, 270만 명이 모인 유월절 절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호하는 이 많은 군중,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광경을 목도한 뒤에 그만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들의 결정 자체가 뿌리째 그 근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즉, 출세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는 자기들의 결정자체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정당성의 근거가 뭐냐 하면 사람의 숫자였어요.
출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당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권세의 출세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람의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종하느냐?
이게 바로 권세의 출처요, 정당성의 근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면 정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거기에 권세가 주어져서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는 진리를 향한 소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죽음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 한편으로 보면 참 비참한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에 근거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게 살았습니다, 신앙의 조건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형편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에요.
13억 조회 숫자가 개구쟁이 같은 가수 싸이를 유엔 한국대표부 신년하례식의 식사자리까지 밀어 올립니다.
전 세계의 1등 도시가 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12월 31일 송구영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서 생일축하를 받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출세에요, 사람의 숫자가 출세를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지지하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오해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했던 것이에요.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공표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환호하는 군중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식민지하에서 바닥으로 내려앉은 이 유대나라의 형편을 모든 민족과 나라들 위에 우뚝 솟게 만들 메시아가 허락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출세의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가정, 내 나라, 내 민족,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추종과 그들의 지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으십니다, 너무너무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270만 명 가운데 제자들도 포함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길에 270만 명이 다 있을 수는 없었겠지만, 하여간 몇 만 명이 모였든지 간에 270만 명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지지도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기준으로 볼 땐 270만 명의 모두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다 틀린 관심이었다는 얘깁니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길은 출세의 길이 아니었어요, 출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출세가 아니라 출 세상의 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 세상이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출세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의 이름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출 세상은 그 인간세상을 빠져나가버리는 겁니다.

임금으로 오셔서 하늘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선택하신 길은 출세의 길이 아니라, '출 세상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세상에서 빠져나가시려고 당신의 임금 되심을 공표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자들을 이제 세상에서 빠져나가게끔 이끄시려고 당신이 구세주이시고 선민들의 왕이신 것을 공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우리가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호산나! 유대의 왕'이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이 곧바로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합창을 부르는 분노의 파도물결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세상을 떠나느냐? 기독교가 금욕주의냐 아니면 이단 영지주의냐?' 영지주의는 교회역사 초창기에 교회를 위협했던 이원론,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선한 것이다'라고 했듯이 그래서 이 세상이 더러우니까 피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 세상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1서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잇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얘깁니다.

육체와 이 세상의 물질은 무조건 더럽고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세상이라는 게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A라는 남자를 마음에서 접어버리고 B라는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 A라는 남자가 원천적으로 더럽고 악하기 때문입니까?
그냥 B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마음에서 접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출 세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 대신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뭡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 소원하는 것, 마음에 꿈꾸는 것, 마음에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마음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소원인 그런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출 세상 하는 것,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아닙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출 세상의 길을 닦으시기 위해서, 길을 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기독교인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되고, 지금보다 나아지고, 지금보다 높아지고, 이런 마음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의 마음을 출 세상 할 수 있게 해주는 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 그 문을 통과해서 출 세상 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수행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인기가 올라가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행해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 출 세상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고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만족과 행복감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채워져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좀 아쉬워요?
출 세상을 하기에는 아직도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버리세요, 힘들지만 버립시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행복과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십자가 출구 너머에서 하나님아버지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따라 출 세상을 하는 하늘백성들이 될지언정, 출세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불신앙적 모습은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회 안에까지 출세를 향한 의지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출 세상 하신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출 세상 하여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